

2021년 10월 18일

KIWOOM

Weekly

## 악재에 익숙해져 가는 시기

한국 증시는 1) 인플레이션 불안심리 완화 여부, 2)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 결과, 3) 국내 10월(~20일) 수출입 결과 등에 매크로 이벤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950~3,090pt).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으며, 향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지난 여름 2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 이 같은 우려가 주가 상으로는 일정부분 선반영 됐다고 판단. 금번 3분기 실적시즌에서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거나 혹은 이익 전망 하향 정도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실적 모멘텀이 재차 형성되면서 추후 국내 증시의 상단을 열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키움증권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한지영

02) 3787-5241

hedge0301@kiwoom.com

| Market 김세헌

02) 3787-5150

saehun.kim@kiwoom.com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9월~10월 초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1)인플레이션 우려 진정, 2)양호한 미국 3Q21 실적, 3)미국 고용 지표 개선을 계기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반등(KOSPI +2.0%, KOSDAQ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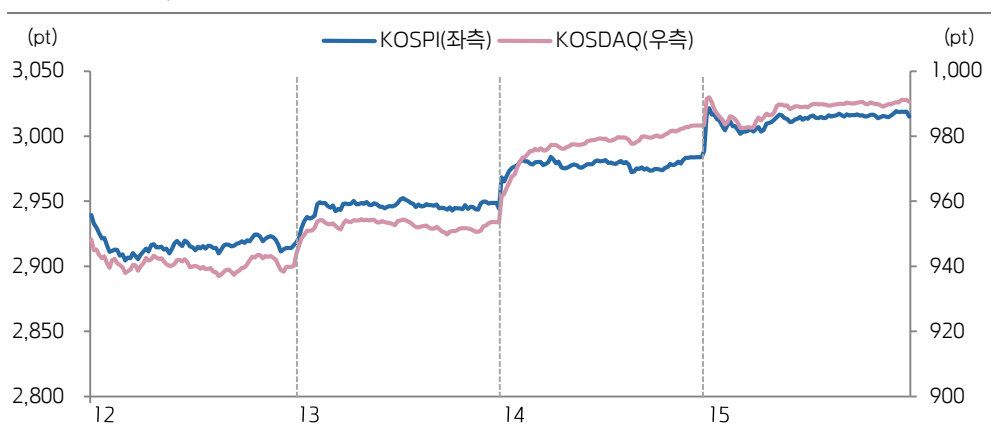
주 초반 KOSPI 지수는 휴장 기간 동안 급등한 유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 하지만 주중 불확실성이 높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와 미국 기업 실적들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에 기여.

미국 CPI는 전년대비 5.4%로 예상치와 전월치와 비슷한 수준에서 발표되었고, PPI는 전년대비 8.6%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소폭 하회. 무엇보다 근원 CPI 지표가 전월대비 같은 4.0%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안도감 발생. 추가적으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9.3만명 기록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 기록한 점이 최근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을 일부 완화시킴.

추가적으로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항만을 24시간 운영하는 대응을 발표. 이에 따라 LA와 롱비치 항구가 24시간 운영, 추가적으로 페덱스, UPS, 월마트,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협력을 확보. 이는 최근 불거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소 진정시킴. 주 후반엔 JP모건, 모건스탠리, BOA, 블랙록, TSMC 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들에 힘입어 3Q21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

업종별로 섬유 의복(+8.9%), 기계(+8.9%), 의료정밀(+5.2%), 철강금속(+5.0%), 은행(+4.6%) 등이 상승, 통신업(-0.7%), 전기전자(-0.2%), 보험(-0.2%) 등이 하락. 수급으로는 외국인(-1조 3,905억원)이 전기전자(-1조 6,780억원) 중심으로 매도한 반면, 기관(+1조 2,858억원)은 전기전자(+3,322억원), 운수장비(+2,473억원), 화학(+2,305억원), 금융(+1,264억원)을 중심으로 매수. 특히 증권(+9,724억원)과 투신(+2,041억원)의 매수세가 강했음.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0.18~10.22)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0월 18일	월	중국	산업생산 YoY	9월	3.8%	5.3%		
		고정자산투자 YoY	9월	7.8%	8.9%			
		경제성장률 YoY	3분기	0.4%	1.3%			
		소매판매 YoY	9월	3.5%	2.5%			
		실업률	9월	5.1%	5.1%			
	미국	설비가동률	9월	76.5%	76.4%			
		산업생산 MoM	9월	0.2%	0.4%			
		NAHB 주택시장 지수	10월	75.0	76.0			
		컨퍼	IMF 가을 컨퍼런스 종료(~17일까지)					
		기업	애플 가을 이벤트(MIX 맥북 프로 기대)					
10월 19일	화	실적	미국: (개장 전) 스테이트스트리트, (마감 후) 스틸 다이내믹					
		EU	건설생산 MoM	8월	NA	0.1%		
		미국	건축허가 MoM	9월	-3.0%	5.6%		
		주택착공건수 MoM	9월	-0.3%	3.9%			
		기업	구글 픽셀 6 런치 이벤트					
	발언	달리(샌프란시스코), 하커(필라델피아), 보스틱(애틀란타) 연은 총재들						
		회담	UK 글로벌 투자 서밋(친환경 투자, 테크, 바이오 등)					
		실적	미국: (개장 전) 존슨앤존슨, P&G, 필립모리스, 트리블러스 컴퍼니, 할리버튼, (마감 후) 넷플릭스, 인튜이티브 서지컬					
		10월 20일	수	일본	수출 YoY	9월	10.0%	26.2%
				수입 YoY	9월	34.4%	44.7%	
중국	신규주택가격 YoY			9월	NA	4.2%		
독일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NA	12.0%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9%	3.2%		
EU	소비자물가지수 YoY(최종)		9월	3.4%	3.4%			
	기업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이벤트, Part 2					
	공개		미 연준 베이지북					
	발언		에반스(시카고), 보스틱(애틀란타), 블러드(세인트루이스), 달리(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					
	실적		미국: (개장 전) ASML, 버라이즌, 에보트 랩, 넥스트 에라, 바이오젠, (마감 후) 테슬라, 램 리서치, CSX					
10월 21일	목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NA	7.3%		
		~20일까지 수출 YoY	10월	NA	22.9%			
		~20일까지 수입 YoY	10월	NA	38.8%			
		일본	공작기계수주 YoY(최종)	9월	NA	71.9%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0월	24.0	30.7		
	기존주택매매 MoM	9월	2.3%	-2.0%				
		EU	소비자지대지수	10월	NA	-4.0		
		미국	선행지수	9월	0.5	0.9		
		회담	EU 정상회담(~22일), NATO 회담(~22일)					
		실적	미국: (개장 전) 다나허, AT&T, SAP, 유니언 퍼시픽, 블랙스톤, 사우스웨스트, 다우, (마감 후) 인텔, 치폴레, 스텍					
10월 22일	금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0.2%	-0.4%		
		제조업 PMI	10월	NA	51.5			
		서비스업 PMI	10월	NA	47.8			
		영국	소매판매 MoM	9월	NA	-0.9%		
		독일	제조업 PMI	10월	56.7	58.4		
	서비스업 PMI	10월	55.0	56.2				
		EU	제조업 PMI	10월	57.5	58.6		
		서비스업 PMI	10월	55.5	56.4			
		미국	제조업 PMI	10월	60.5	60.7		
		서비스업 PMI	10월	55.1	54.9			
회담	APEC 재무장관 회의							
	러시아-이스라엘 정상회담(러시아)							
	발언	달리(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실적	미국: (개장 전) 허니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슬롬베르거, 씨게이트							

## 2.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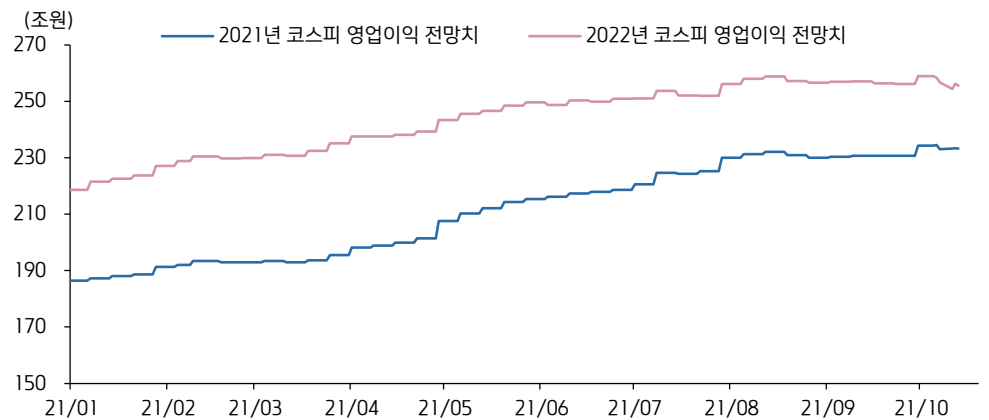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1) 인플레이션 불안심리 완화 여부, 2)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 결과, 3) 국내 10월 (~20일) 수출입 결과 등에 매크로 이벤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현재 미국의 3분기 실적시즌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 같은 미국발 혼풍이 국내 3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950~3,090pt).

아직까지는 공급난이 유발한 악재로서의 인플레이션 이슈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15일(금) 미국 증시 강세를 견인한 9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0.7%MoM, 예상 -0.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물 경제주체들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은 수준임에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시사. 물론 22일(금) 발표 예정인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 예비치에서의 공급난 완화 여부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주춤 지속될 전망. 다만, 수요가 뒷받침되는 인플레이션 성격도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역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에 익숙해질 것임을 감안 시 인플레이션을 악재로서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역기저효과, 델타 변이 충격 여진, 인플레이션발 마진 축소 불안에도. 현재 미국의 3분기 실적시즌은 예상보다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중.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월 말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국 증시 조정은 펀더멘털이 아니라センチメント 위축에서 기인했다는 것(センチメント 위축은 단기간에 급격한 증시 하방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나, 반대로センチメント 회복 시 빠르게 증시가 회복되는 경향 존재)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간 이익레벨업 추세가 유효함에도 국내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으며, 향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지난 여름 2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 이 같은 우려가 주가 상으로는 일정부분 선반영 됐다고 판단. 금번 3분기 실적시즌에서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거나 혹은 이익 전망 하향 정도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실적 모멘텀이 재차 형성되면서 추후 국내 증시의 상단을 열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2021년과 2022년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 이익레벨업 추세는 유효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